

농어촌 기본소득 우수사례 공유 임실표 매운 맛, 일본 진출 첫발

최영일 순창군수, 시범사업 간담회 참석해 성과 알리고 ‘햇빛소득’ 제도 개선 건의

최영일 순창군수가 지난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열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간담회’에 참석해 순창군의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햇빛소득마을’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간담회에는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비롯해 농산업혁신정책실장, 전국 17개 군 관계자 등이 참석해 사업 추진 현황과 지역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최 군수는 ‘기본소득이 사람을 잇고, 사람이 농촌을 다시 움직인다’를 주제로 발표에 나서 주민 주도형 지역순환경제 모델을 소개했다. 그는 기본소득 지급 이후 주민 소비가 지역 상권 매출 증가와 생활서비스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유등면 ‘순창곶간’과 종산면 ‘동구장터’를 대표 사례로 꼽았다.

실제로, 주민과 지역 생산자, 소상공인,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연결해 지역에서 발생한 소비와 수익이 다시 주민에게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군수는 기본소득 성과 공유와 함께 순창군이 추진 중인 ‘햇빛소득마을’ 100개 조성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정부에 요청했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 또는 공공이



최영일 순창군수가 지난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열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간담회’에 참석해 순창군의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햇빛소득마을’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주도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발전이익을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사업이다. 군은 농어촌공사 소유 저수지와 제방, 주변 유휴부지 등을 적극 활용하면 햇빛소득마을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현행 제도상 사용 가능 부지와 수의계약, 허가기간, 사용료 등이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최 군수는 농어촌공사 소유 저수지의 수상·제방과 주변 유휴부지를 지자체 주도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지침개정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저수지 수상형 태양광 설치 가능 면적을 만수면적의 20% 이내로 확대하고, 주민참여형·공공주도형 재생에너지 사업의 사용허가 계약기간을 최장 30년까지 늘리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군은 관련 제도가 개선될 경우 재생에너지 사업의 추진 기반이 확대되고, 발전이익을 주민과 공유함으로써 지역 에너지 자립은 물론 새로운 농촌 소득원을 마련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 풋고추(청양고추) 일본 수출 기념식 열려

임실표 매운맛이 이제 국내를 넘어 일본인의 입맛을 겨냥한다.

임실군의 대표 농산물인 ‘임실 풋(청양)고추’가 뛰어난 품질과 상품성을 앞세워 일본 수출의 첫발을 내디디며, 임실 농산물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임실군은 21일 임실풋고추작목반(회장 김학춘), 덕례영농조합법인, 에스에쓰무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실 풋고추 일본 수출 기념식’을 개최하고,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해외 시장에 알리는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번 수출은 임실 풋고추의 뛰어난 품질과 상품성이 해외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인정받으면서 성사됐다.

임실 풋고추작목반은 전문 무역업체를 통해 매주 1.5~2톤 규모의 청양고추를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수출 성수기인 8월부터 9월까지 안정적인 물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2021년 결성된 임실 풋고추작목반은 현재 12개 농가가 참여해 7.8ha 규모의 시설하우스에서 청양고추를 생산하고 있다. 철저한 온실 환경관리와 세심한 재배기술을 바탕으로 기상 여



건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연중 안정적인 생산체계를 구축한 것이 강점이다.

특히, 매일 수확하는 체계적인 관리로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주요 농산물 도매시장 경매에서 전국 상위 1%수준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실제 타 지역 특품의 평균 낙찰가격이 4만원대인 데 비해 임실 풋고추작목반의 물량은 5만원대의 높은 낙찰가격을 기록하며 품질과 상품성을 입증하고 있다.

이같은 국내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이번 일본 수출로 이어지면서 ‘임실고추’의 브랜드 가치를 한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실 풋고추작목반은 올해 350톤의 청양고추를 생산해 약 14억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평생학습관, 지역사회에 재능 나눔

남원시 평생학습관은 7~8월 정규교육 휴강기를 활용해 운영한 ‘특화동아리’ 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의 배움과 재능을 지역사회에 환원했다고 자랑했다.

이번 특화동아리는 홈페이지 기초 등 22개 과정 181명이 참여해 6주간 심화학습과 사회 환원 활동을 진행, 학습자들은 수업에서 익힌 기술을 활용해 바지, 배넛지고리, 손뜨개 수세미, 원목도마 등 21품목 550여 점의 재능나눔 물품을 제작해 남원시보건소, 금치면, 남원사회복지관 등에 전달했다.

특히 이번 활동은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물품 나눔과 공연, 체험 프로



그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 라인댄스와 통기타 동아리는 노인복지시설을 찾아 공연을 펼쳤으며, 천연화장품 자격과정 학습자들은 장애인 학습자 대상 천연 화장품 만들기 체험을 진행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공습대비 민방위훈련 실시

순창군은 지난 20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남양휴튼 아파트 일대에서 을지연습과 연계한 ‘2026년 공습대비 민방위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적의 공습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주민들의 신속한 대피 능력을 높이고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이날 오후 2시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자 남양휴튼 아파트 주민들은 안내



요원의 유도에 따라 계단을 이용해 지하대피소를 신속하게 대피했으며, 대피 후에는 화재예방교육 및 소화기 사용법 등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 지리산 흥부골 포도축제 개최

28~30일 사랑의 광장서

남원시 이영면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2026 지리산 흥부골 포도축제가 남원 사랑의 광장에서 열린다.

축제에서는 남원의 대표 특산물인 흥부골 포도의 맛과 매력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행사로, 지리산 흥부골 포도작목회와 지리산농협이 주최·주관, 전북특별자치도와 남원시가

후원한다.

흥부골 포도는 해발 450m 내외의 준고랭지 지역에서 재배돼 높은 당도와 깊은 향을 자랑하며, 남원을 대표하는 농특산물로 자리매김, 이번 축제는 시민과 관광객이 도심에서 흥부골 포도를 직접 맛보고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여름철 남원의 대표 농특산물 축제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귀농귀촌인 안정적 정착 기반 확대

남원시가 농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과 유휴농지, 유휴시설물을 체계적으로 조사해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선다.

이번 조사를 통해 농촌 지역에 흩어져 있는 빈집과 유휴시설물의 현황을 파

악하고, 임대, 매매 등의 거래 및 활용의향까지 면밀히 조사해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한다.

대상은 농촌 지역 빈집을 비롯해 유휴농지와 하우스, 축사, 과원 등이다. 남원시는 해당 자원의 소재지와 소유자 현황, 임대 또는 매매 의향 등을

파악해 활용이 가능한 유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조사를 통해 확보한 유휴자원 정보는 귀농귀촌 맞춤형 정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 이를 통해 주거와 영농 기반을 찾는 귀농귀촌인의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지역 내 유휴자원을 새로운 정착 기반으로 연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 하천·계곡 불법 점용 시설물 정비

남원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금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하천·계곡 불법 점용 시설물 정비를 여름 휴가철 기간 불법 상행위 단속과 병행 확대 운영하고 있다.

양충모 남원시장은 “하천·계곡내 불법시설물 정비로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을 만들기 위해 산내면 민수천(뱀사골) 현장을 방문, 하천내 불법시설물은 하천유수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환경오염에 영향을 끼치고, 하천·계곡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안전사고에 위험을 주므로 불가피하게 철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농지 이용실태 집중점검 실시

임실군은 이달부터 지역 내 농지를 대상으로 이용실태를 집중 점검하는 ‘농지전조사(삼층조사)’를 본격 실시한다.

이번 삼층 조사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 농지 중 기본조사 결과와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산발된 농지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삼층 조사 대상은 최근 10년 내 농취증 발급 농지, 경매 취득 농지, 법인 소유 농지, 관의 거주자 소유 농지, 공유취득자 소유 농지, 기본조사 불발 의심 농지 등이다.

임실군의 삼층조사 농지는 2만 8331필지이며, 공무원과 조사원으로 구성된 40여명을 투입하여 현장조사와 보완조사 방식으로 진행하되, 지형이 위험하거나 진입하기 곤란한 농지는 드론으로 촬영해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현장조사를 통해 불법점용, 실경작, 불법임대차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불법 이용이 의심되는 농지나, 휴경 등은 주민문답조사, 탐문조사, 서류조사 등 보완조사도 병행한다.

군은 올해 말까지 농지이용실태를 확인 후 조사가 완료된 필지의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청문을 거쳐 처분 의무 부과 등 사후조치(2027년 예정)를 취할 예정이다. 위법 농지나 장기 유휴농지에 대해서는 필요시 농지은행에 매입하거나 청년 농업인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황회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通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경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인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돌리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은 남아 놓았는데, 여덟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뒷마루와 난간을 돌리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우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